

20일)에 개최되므로 박람회가 갖는 교육적 효과는 더욱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금학회가 주관하는 아세아 태평양 학술대회는 가입국 14개국에서 모이고 한국 양계산업의 누적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닭의 영양, 번식 생리와 기술, 육종, 사료, 가공처리, 질병 및 위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8명을 초청하여 특강을 갖도록하고 또 한국 양계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재 한국 양계 산업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계사의 자동 환경조정 계사의 설계와 운영 그리고 자동화 시설내에서의 에너지 대사, 질병위생 관리에 대한 심포지움(4명의 연사)과 또 경쟁 대상국들의 양계 생산 전략을 발표케 하므로써 한국 양계의 생산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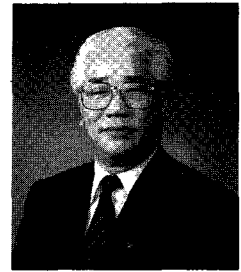
또 본 대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양계 생산 전략”이란 주제로 3일간 학술대회가 개최되면 14개 회원국에서 그동안 얻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어 한국 양계산업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공헌 할 국제학술대회와

박람회의 만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 양계산업을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기회에

양계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의에 빠진 한국 양계를 재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현재 당면한 우리들의 축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회가 되길...



송 찬 원
축협중앙회 회장

제 2 회 한국양계박람회
의 개최를
우리 양축가 조합원 모두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계산업을 비롯한 지금의 우리 축산업은 가속화되는 시장개발의 거센 물결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인 모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임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 우리 축산업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축산농민들은 축산업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격적인 축산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외 축산선진국들의 기술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축산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국양계박람회의 개최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더없이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우리 안팎의 시장정보와 축산정보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축산 현장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외부의 정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느냐 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축협에서도 해외통상관계등을 전담할 해외 개발실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통상 마찰을 해소키 위한 노력과 국내외 축산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축산정보 수집 및 보급이나 우리 축산

의 국제화를 위한 기회와 노력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뜻에서 해외 축산선진국들의 기술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축산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국양계 박람회의 개최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더없이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양계인들을 비롯한 축산인들은 지난 '91년 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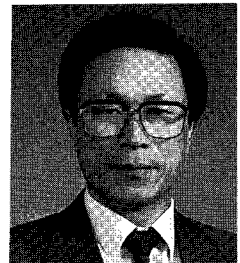
두번째가 되는 이번 양계박람회에는 더욱 많은 나라, 다양한 단체가 참가하여 우리 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리 축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훌륭한 행사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93년 한국양계박람회가 우리 양계농민 뿐 만 아니라 우리 축산인 모두에게 해외축산을 살피고 수용하는 학습의 장으로써 또 한국의 양계산업, 축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써 우리 축산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뜻깊은 잔치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93한국양계 박람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애쓰신 양계농민, 양계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축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되길...



양 창 옥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회장